

# 2024년 누리과정 포털 자녀와 함께 하는 독서활동 수기 공모전 장려상

제목: 그림책으로 행복한 육아, 그림책으로 행복한 아이

## 1. 민들레야, 안녕?

"엄마, 꽃이 피었어요." 여기저기서 꽃내음이 풍기는 올해 봄, 아이와 함께 동네를 산책하면서 다양한 꽃들을 만났다. 그중, 아이 눈높이에서 가장 많이 보이는 꽃은 단연 민들레. "엄마! 여기도 민들레 꽃 있어! 어? 또 찾았다!". 아이는 아파트 공터 잔디밭에 핀 민들레를 관찰하기 시작했다. 내가 "은호야, 꽃이 핀 민들레도 있고, 여기 아직 피지 않은 민들레도 있네?" 하자, 아이는 아파트 단지 구석에서 피지 않은 민들레를 보면서 "내가 안 핀 민들레 찾았어! 그런데 언제 꽃이 필까? 내일 또 와 보자!" 하였다. 그날 저녁, 집에서 아이는 책장에서 「봄소식을 알려주는 민들레」 책을 찾아 왔다. "엄마! 내가 민들레 책 찾았어! 읽어주세요!". 그림책은 아이에게 새로운 세상이고, 최고의 선생님이다. 궁금한 것이 생기면 어김없이 그 소재에 대한 그림책을 보곤 한다. 책 속에서 민들레 흩씨가 되어 날아가는 내용을 보고는 "나 이거 후~ 해봤어! 언제 이렇게 변할까? 내일 또 가보자!"하고 민들레와의 만남을 기대한다.

## 2. 민들레꽃이 피었어!

매일 같은 장소로 민들레를 만나러 간 우리. 며칠이 지난 후 드디어 민들레꽃이 피었다. 그런데 "엄마, 이거 꺾어도 돼? 집에 가져가고 싶어." 하고 아이가 말했다. 나는 "꽃을 꺾으면 아프지 않을까? 우리가 잘 자랄 수 있도록 응원해 주면 어떨까? 또 꽃이 잘 자라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니 "물을 줘야지?" 한다. 다음 날, 집에서 생수를 가져온 아이는 민들레꽃에게 물을 듬뿍 주며 "쓱쓱 자라라."한다.

## 3. 서점 나들이

아이들은 관심 있어 하는 것, 스스로 동기 유발이 된 놀이에 몰입한다. 아이와 서점에 갈 일이 있었는데, 역시나 온통 관심사인 민들레 책을 찾았다. 도서 검색대에서 찾은 책 「아빠와 민들레」를 건네자 아이는 보물을 찾은 마냥 "민들레 책이다!" 하고 신나 했다. 곧바로 그 자리에 앉아서 읽어 보고, "집에서도 또 볼래요."해서 그 책을 사서 집으로 왔다.

아이가 태어나면서부터 44개월인 지금까지 수면 의식의 일환으로 자기 전 항상 아이에게 그림책을 읽어준다. 그날 밤은 서점에서 고른 책을 함께 보며 동네 사람들이 잡초라고 민들레를 뽑으려는 장면에서 나는 "줄리 기분이 어떨까?" 하고 질문하니, 아이는 "안 돼! 뽑으면 안 돼! 줄리가 소중한게 생각하는 건데..."하고 심각한 표정을 짓는다. 줄리의 아빠의 실수로 민들레꽃이 부러진 장면에서는 "불쌍하다."하고 아쉬운 표정을 짓기도 하였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민들레꽃을 보고 꺾으면 안 되냐고 물어보던 아이는 민들레꽃을 소중한게 지켜주자고 말한다. 아이들은 그림책을 통해 다양한 감정을 이해하는데 좋은 도구가 된다. 또한



아이는 그림책 속 장면을 자신의 경험과 연결 지어 생각하며, 이를 통해 자신의 감정을 이해하고 조절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날 밤, 잠들기 전 아이는 책에 나온 민들레꽃의 이름을 부르며 “우리도 내일 샬롯 1호, 2호, 3호를 찾으러 가는 건 어때?” 하고 기대한다.

#### 4. 민들레와 꽃가게

다음 날도 어김없이 민들레꽃을 보러 갔다. 민들레꽃은 드디어 흙씨가 되어 있었다. 아이는 “우리도 사자 아빠처럼 후~ 불어주자!”하고 그림책 내용을 떠올렸다. 민들레 흙씨를 불며 “샬롯 1호, 2호, 3호 돼서 또 만나!” 하고 손을 흔들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우리 동네 아파트 상가에는 꽃가게에서 멈춘 아이. “엄마, 꽃가게에도 민들레 팔아요?”한다. 나는 “들어가서 한 번 물어볼까?” 한다. 꽃가게 사장님에게 “민들레꽃도 팔아요?”묻는 아이. 사장님은 “민들레꽃은 잔디밭에서 볼 수 있고, 여기는 없어. 대신 다른 봄꽃들이 많이 있어. 구경해볼래?” 하셨다. 아이와 함께 꽃가게에 진열된 꽃을 구경하면서, 아이는 민들레 말고도 다양한 봄꽃에 대해 관심을 가진다. 그날은 민들레와 같은 색깔인 노란색의 프리지아를 사서 집으로 돌아왔다.



#### 5. 놀이로 연계된 꽃놀이

프리지아를 시작으로 아이는 꽃을 키우는데 흥미를 가졌다. 우리 집은 꽃밭이 되어 매일 물을 주고, 꽃이 자라는 과정을 관찰하게 된다. 그러던 중 아이는 “우리 집에는 나비가 날아올 수 없잖아. 우리 집에 꽃들 많은데.” 하고 아쉬워한다. 그래서 나는 봄꽃 사진과 봄의 곤충인 나비, 꿀벌 사진을 제시해 주며, “우리가 나비를 만들어 보면 어떨까?”제안하였다. 아이는 “우리 집도 꽃밭으로 만들고, 나비도 날아오게 하자!” 하며, 사진을 오려 블록에 붙이기 시작한다. 나는 휴지 심과 리본 끈을 제시하여, 아이가 날아다니는 나비를 표현해 볼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어느덧 우리 집은 꽃밭이 되고, 나비와 꿀벌들도 날아온다. “나는 민들레꽃을 제일 좋아해! 쪽쪽, 꿀은 맛있어!” 하고 아이는 한동안 이야기를 꾸미며 집에서도 봄을 만끽하였다.

아이의 경험과 그림책에 놀이를 더하는 순간, 아이는 온전히 몰입하게 되었고 온전히 아이에게 스며들고 있었다. 올해 봄, 아이와 우연히 민들레를 발견하면서 민들레 그림책을 보았고, 더불어 봄꽃과 관련된 놀이로 연계되면서 아이는 봄을 온전히 느꼈으리라 생각된다.

또한 아이와 매일 밤에 잠들기 전에 그림책을 보았던 경험들, 매일 밥을 먹는 것처럼 자연스러운 하루의 일부분으로 그림책을 읽어주기를 하였던 경험들이 아이가 성장하는데 큰 밑거름이 되고, 힘이 되었으면 하고 바란다. 나 또한 내 아이와 교감하는 최고의 시간, 그림책으로 보내는 육아가 행복하다.